

1894년 양호도순무영의 설치와 활동*

신영우**

〈목 차〉

머리말

I. 양호도순무영의 공문서 기록인 『갑오군정실기』 검토

II. 양호도순무영의 설치

III. 양호도순무영의 직제와 인원

IV. 양호도순무영의 출진장졸과 주요 활동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1894년 동학농민군 봉기를 진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의 조직과 활동을 살펴보고자 작성하는 것이다.

양호도순무사 신정희(申正熙)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최고지휘부인 양호도순무영을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1894년 9월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국왕이 인질로 된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공사가 내정간섭을 공공연히 자행하던 때였다.

* 이 논문은 2016년 10월 6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최한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순무사 신정희가 일본과 협력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공사관 뿐 아니라 동학농민군 진압을 목적으로 증파해온 일본군 후비보병제19대대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그런 까닭에 순무사 신정희는 동학농민군이 완전히 진압하기 전에 다른 관직을 받고 군직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양호도순무영의 마지막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될 수 없었다. 그러나 2011년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도서가 반납되었을 때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가 포함되었고, 이를 통해 순무영의 유사가 작성한 기록이고, 순무영 조직과 설치 내용, 그리고 존속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군사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글은 『갑오군정실기』를 근거로 양호도순무영의 설치와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주제어 : 양호도순무영, 순무사 신정희, 동학농민군, 일본군, 갑오군정실기

머리말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은 갑오년 9월 22일 정부에서 호위부장 신정희(申正熙)를 도순무사(都巡撫使)에 임명한 후 12월 27일 폐지할 때까지 95일 동안 활동했던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최고지휘부였다.¹⁾ 활동기간을 양력으로 보면 1894년 10월 20일부터 1895년 1월 22일 까지 해당된다.

도순무사 신정희는 호위청을 비롯 경군 병영인 통위영 장위영 총어영 용호영 경리청을 망라해서 도순무영을 구성하고 전국 각 지방에 임명한 소모사 소모관 별군관 조방장 등을 지휘해서 동학농민군 진압을

1) 1894년에 설치된 순무영의 명칭은 양호도순무영이다. 당시 기록에 양호순무영이나 도순무영, 또는 순무영으로 나온다. 아래에 기술하듯 양서순무영(兩西巡撫營)과 기보순무영(畿輔巡撫營)이 있었기 때문에 혼동을 막기 위해 양호도순무영으로 써야 하지만 이후 이 글에서는 1894년에 설치된 양호도순무영을 줄여서 도순무영, 그리고 도순무사로 표기해서 구분하려고 한다.

이끌었다. 강화도의 심영은 물론 지방 요지에 설치된 병영과 수영의 병사와 수사도 도순무사의 명을 받았고, 각 군현의 관아와 밀접하게 협력했던 민보군과 부보상들도 그 지시를 따랐다.

각 병영과 군사 조직뿐 아니었다.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의 감사들도 동학농민군 진압에 관해 일체를 도순무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개 도의 지방관도 순무영의 지침과 명령에 따라서 동학농민군 진압에 나서고 있었다.

그러나 도순무영은 활동 여건도 매우 어려웠고, 전투 역량도 그리 크지 않았다. 첫째, 동학농민군의 규모와 비교하면 군사의 수가 많지 않았다. 둘째, 신식무기를 일본군이 탈취해가서 무기가 없었다. 선봉진을 비롯 파견된 병사들은 일본군이 돌려준 일부 소총으로 무장했으나 탄환 보급이 순조롭지 못했다. 셋째, 전국 각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작전 계획을 적절하게 세우지 못했다. 넷째, 많은 병력을 여러 지역에 파견하면서 군량 등 지원물자를 적절히 공급할 수 없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경군 파견군의 지휘권을 일본군 장교가 장악하였다.

경복궁이 일본군 혼성 제9여단에 의해 기습 점령된 이후 조선정부의 주요 정치문제는 일본공사의 간섭 아래 결정되었다. 조선정부의 군사문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일본군이 경군 병영을 기습해서 무장해제를 시킨 까닭에 경군 병대는 일본군에게 일부의 무기를 돌려받아서 사용해야만 했다.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자 일본 히로시마대본영은 그 진압을 목적으로 후비보병 제19대대를 증파시켰는데 도순무영이 파견한 경군 병대의 지휘권을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소좌에게 넘기도록 하였다.

하지만 전국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를 벌이던 경군 각 병영의 파견군은 도순무영에 전투보고를 올렸고, 도순무영은 갖가지 군무에 관한 명령을 내렸다. 각 도의 감영과 군현에서 군사관련 첩보와 동학농민군 진압 관련 보고를 직접 올린 곳이 도순무영이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

명의 2차봉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순무영의 활동을 상세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12월 27일 도순무영이 갑작스럽게 해체되었다. 도순무사 신정희는 이보다 4일 앞서 강화유수에 임명되었다. 도순무영을 이끌던 최고지휘관이 직책에서 물러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이 시기는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동학농민군의 주력은 궤멸되었으나 완전히 전황이 종식되지 않았던 때였다. 임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순무사가 자리를 떠나고 도순무영을 폐지하는 사태는 일본공사의 내정간섭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사태였다.²⁾

일본공사는 고종에게 협박하거나 군국기무처 의원을 조종해서 내정간섭을 자행해왔지만 도순무영의 군무에는 직접 간여하지 못하고 외부대신 김윤식을 통해 어렵게 협력을 요청해왔다. 도순무사 신정희는 노인정회담부터 껄끄러운 대상이었고, 중군 허진은 대원군파라고 해서 기피하는 인물이었다. 선봉장으로 경군 파견군을 지휘했던 이규태는 우금치전투에서 일본군 장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알력을 빚었다. 그런 까닭에 일본공사나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장교들은 도순무사나 선봉장을 꺼려하였다. 도순무영의 갑작스런 폐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도순무영의 조직이나 활동 전반을 알려주는 공식문서는 정상적인 도순무영 조직 속에서 작성하지 못하였다.³⁾

도순무영은 각종 부서와 인원이 갖춰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문서 수발을 담당하는 유사가 있었다. 그리고 유사가 보관해온 문서들을 토대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해왔다. 흥경래란을 진압한 후 당시 설치되었던 양서순무영(兩西巡撫營)에서 『순무영등록(巡撫營謄錄)』 5권 5책⁴⁾을 작

2) 신영우, 2011, 「兩湖都巡撫營 指揮部와 日本軍 간의 갈등」, 『군사』 81, 참고.

3) 도순무영의 사정은 영남 상주에 설치된 소모영에서 활동 전반을 전해주는 공식문서를 남긴 것과 비교된다. 상주소모영은 설치 이후 주고받은 공문서를 모은 『소모사실(召募事實)』 2책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상주소모사 정의목도 임명 초기부터 소모영을 폐지할 때까지 활동한 내용을 일기식으로 기록한 『소모일기(召募日記)』를 남겼다.

성하였고, 1866년 병인양요 당시 운영된 기보순무영(畿輔巡撫營)에서도 『순무영등록(巡撫營謄錄)』 5책을 만들었던 선례가 있다.⁵⁾

하지만 1894년에 설치된 양호도순무영에서는 이런 선례에 따라 등록을 만든 바가 있는지 그 존재 여부는 알지 못해왔다.⁶⁾ 필자가 양호도순무영의 공식문서에 대한 단서를 찾아낸 것은 2011년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도서 1205책이 반납되었을 때였다.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으로 가져간 귀중도서 속에 “국내에 없는 유일본”들이 있었고, 그 중에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10책이 포함되었다.⁷⁾

필자는 갑오군정(甲午軍政)이 도순무영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조도서 환수기념 특별전’⁸⁾을 열었을 때 이 책이 양호도순무영에서 작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에서 이 책은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그래서 여러 내용을 일정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갑오군정실기』와 관련한 몇 가지 사실을 설명하고, 양호도순무영의 설치와 조직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순무영에 편제된 병대가 활동한 주요 내용의 일부를 간략히 알아보려고 한다.

4) 『순무영등록(巡撫營謄錄)』 규장각 古4250-66.

5) 『순무영등록(巡撫營謄錄)』 국립중앙도서관 BA2109-27; 규장각 奎 15063.

6) 규장각과 장서각,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실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양호도순무영의 공식문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7) 이상찬, 2002, 「이등박문이 약탈해 간 고도서 조사」, 『한국사론』 48, 서울대 국사학과. 이토 히로부미의 고도서 반출과 그에 대한 조사는 이 논문에서 자세하다. 이 조사에 의하면 『갑오군정실기』 10책은 규장각 대출본이 아닌 통감부 수집본에 속해 있다.

8) 국립고궁박물관, 2011, 『다시 찾은 조선왕실 의궤와 도서』, 이 특별전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2월 5일까지 열렸다.

I. 양호도순무영의 공문서 기록인 『갑오군정실기』 검토

1. 양호도순무영의 폐지와 공문서 정리

양호도순무영⁹⁾의 직제에는 종사관과 서기 또는 문서를 담당하는 직책이 있었다. 도순무영의 임무 종료 후 공식 활동보고서를 제작할 때 실무를 맡는 직책들이다. 그러나 도순무영은 설치 목적을 완수한 이후 잔무까지 처리하고 해산한 것이 아니었다. 도순무영에서 수발한 모든 문서를 모아서 정리하고, 도순무사가 활동한 사실들을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려는 보고서를 남길 수 없었다.

단적으로 말하면, 도순무영은 일본공사의 압력에 의해 폐지되었다. 도순무영은 일본공사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지 않았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의 군사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동시에 일본공사관에 와있던 참모본부 소속의 고위 정보장교인 구스노세 유키히코(楠瀬幸彦) 중좌 등과 협력하지 않았다. 구스노세 중좌는 조선 군부의 고문이 되어 모든 정보를 빼가던 스파이이기도 했다.

경군 파견군 지휘관 가운데 일본군과 협력을 꺼려하던 좌선봉 이규태도 후비보병 제19대대의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 소좌가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미나미 소좌는 일본공사에게 진압군을 이끌던 이규태의 소환을 요구하였다.

일본공사는 조선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도순무영을 와해시켰다. 12월 23일 도순무사 신정희는 강화유수로 전임되었고, 같은 날 중군 허진은 경기도 통진부사로 좌천되었다.¹⁰⁾ 좌선봉 이규태는 전라도 현지에서 소

9) 이하 도순무영이라 표기한다.

10) 『고종실록』 1895년 2월 2일. 한달 여 지나서 다시 허진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로 임명하여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도록 했다.

환되었다.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소좌가 다음해 봄에 일본군 상관들과 정부 관료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규태가 소환당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¹¹⁾

“羅州城에서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8일, 李圭泰가 갑자기 찾아와서 고해 말하기를, “政府에서 빨리 돌아오라는 명령이 있었다. 그래서 곧 출발하려 하니 삼가 지휘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小官이 말하기를, “政府의 명령을 나는 아는 바가 없다. 또 무슨 지휘가 필요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는 그 외에 또 돌아가는 길에 들를 곳을 물었다. 小官이 말하기를, “지금 東學徒가 모두 鎮定된 마당에 어떤 길로 돌아간들 안될 것이 무엇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불안해하는 기색으로 군이 지휘해 줄 것을 청했다. 小官이 말하기를, “지금 東匪가 모두 鎮定되어 모든 부대가 명령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직 귀 부대에게만 돌아오라는 명령이 있었다니 좀 이해할 수가 없으나 귀국 정부의 명령에 대해서는 小官이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하였다. 小官이 다시 더 일러 말하기를, “恩津을 출발한 이후 귀하를 꾸짖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軍務의 공무집행상 한 것이고 사사로운 정은 조금도 여기에 개재되어 있지 않다. 좋게 생각하고 안심하라. 그러나 오직 이것에 대한 公私를 구별 짓지 아니할 수는 없다. 훗날 京城으로 돌아가 大君主 陛下께 征討의 실황을 상주할 때, 귀하가 한 번도 진두에 서서 병사들을 지휘한 일이 없었고 아울러 한 사람의 포로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은 掩蔽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였다. 이로서 李圭泰와는 헤어졌다.”

이 자리에 있던 군부고문 구스노세 유키히코 중좌가 “좌선봉만 먼저 돌아오라고 명령한 것은 사실인가.”고 묻자 군부협판 권재형(權在衡)이 사

1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二. 各地東學黨 征討에 관한 諸報告 <제1권 제7장의 후반부> (2) 東學黨 征討略記.

실이라고 답을 했다. 일본공사가 강요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고종은 강화유수에 임명한 신정희에게 이례적인 교지를 내렸다.

“ --- 유수의 자리를 높이 여겨 이에 선발되는 자는 문과 무를 겸비했다. 어떤 이가 이에 합당하겠는가. 예부터 적임자를 찾기 어려웠도다. 오직 경은, 한 몸이 이 땅의 안위를 짊어지고서 명망은 태산과 북두성처럼 중하도다. 조상의 발자취를 이어 백성들을 편히 다스리는 태평의 시대를 누리고, 아비의 학업을 이어 군사를 운용하는 능력을 겸비하였도다. 詩書와 禮樂을 좋아했던 쥘 나라 대부인 郤縠과 같은 높은 풍도를 지녔으며, 雅詩를 부르며 投壺를 즐겼던 東漢의 장군인 祭遵보다도 넓은 도량을 지녔도다. --- 생각건대, 이 커다란 강화도는 참으로 바다를 방비하는 요충지로나. 金城湯池의 장엄한 형세는 하늘이 내린 험준함이고, 성곽과 해자는 수륙이 교차함이니 나라의 방패막이 되는도다. 眞殿을 風雲이 길이 보호하고 있으니 이곳은 제2의 서울이라 불리우고, 명산에 史籍이 깊이 보관되어 있으니 세상에서는 外關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니 이곳을 맡김에 있어 매우 신중히 하여, 반드시 명망과 실재를 겸비한 자를 등용해야 한다. 이에 경에게 行江華留守 兼 鎭撫使를 제수하노니, 경은 힘써 훌륭한 제책을 펼쳐 공경히 총애어린 명에 따르라. 두루 진무하여 속히 비적을 소탕하고, 깨끗이 물리쳐 속히 성과를 보고하라. 여러 해 많은 군사를 거느리면서 나만 수고롭다는 탄식을 하겠지만, 대대로 이곳을 맡아 다스림은 또한 보기 드문 영광이로다. 나라의 방비를 믿고 맡기는 것을 조정의 노성한 신에게 의지하노니, 이목을 모으는 깃발과 북소리에 성곽의 모습은 화려하게 거듭날 것이다.”

도순무사에서 강화유수로 전임한 것이 정상적인 관직 이동이었다면 이처럼 전례 없는 교지를 내리지 않는 않았을 것이다. 강화유수는 심영(沁營), 또는 진무영의 진무사를 겸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두루 진무하여 속히 비적을 소탕하고, 깨끗이 물리쳐 속히 성과를 보고하라”는 지시까지 하고 있다. 신정희는 강화유수로 근무하던 중 1895년 6월 18일 향

년 63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런 까닭에 도순무영의 공식 활동기록을 도순무사와 증군이 관여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없었다. 『갑오군정실기』는 잘 정서한 필사본이지만 중앙관서에서 성책한 것으로는 체제가 번듯하지 않다. 상주소모영에서 만든 『소모사실』에 비해서도 왜소하며, 심지어 목차조차 신지 않았다.

2. 『갑오군정실기』 내용의 간략 검토

『갑오군정실기』는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책에 실린 공문을 정리한 날짜와 면수는 다음과 같다.

- 1책 (118면) : 갑오 9월 22일 - 10월 11일
 - 2책 (87면) : 갑오 10월 11일 - 10월 20일
 - 3책 (92면) : 갑오 10월 21일 - 11월 2일
 - 4책 (98면) : 갑오 11월 3일 - 11월 15일
 - 5책 (72면) : 갑오 11월 16일 - 11월 21일
 - 6책 (95면) : 갑오 11월 21일 - 11월 30일
 - 7책 (76면) : 갑오 12월 1일 - 12월 10일
 - 8책 (67면) : 갑오 12월 10일 - 12월 15일
 - 9책 (104면) : 갑오 12월 16일 - 12월 28일
 - 10책(114면) : 유영장졸(留營將卒) 출진장졸(出陣將卒) 기공(紀功)
- 합계 923면

『갑오군정실기』는 일정한 기준으로 분책하지 않았다. 날짜로 보면 짧은 경우 6일에 해당하는 공문서를 모았고, 긴 경우 20일에 달하는 기간의 공문서를 모았다. 모두 1894년 9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이다.

각 책의 면수도 모두 다르다. 8책의 67면에서 1책의 118면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난다. 내용에 따라서 구분한 것도 아니다. 같은 날에 해

당하는 내용이 앞책의 마지막과 뒷책의 첫부분에 이어져 있다. 정서로 필사를 한 후 일정한 기준을 두지 않고 면수와 관계없이 책으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1책에서 9책까지는 낱싸순으로 공문서를 전제해서 편집했지만 10책은 공문서를 묶지 않고 도순무영에 속해서 활동한 사람들의 직책과 이름 그리고 인원수를 기록하였다. 유명장졸(留營將卒)은 서울의 도순무영에서 활동한 장졸을 의미한다. 유명장졸 중 전라도와 충청도로 파견을 나간 인물도 있고 군사를 거느려서 동학농민군을 직접 수색하거나 전투를 벌이고 진압한 인물도 있다.

출진장졸(出陣將卒)은 도순무사의 명을 받고 전국 각지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장졸을 가리킨다. 경군 각 병영과 강화도의 진무영(鎭撫營), 즉 심영(沁營) 장졸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공(紀功)은 출진장졸을 중심으로 전투에 나가 공을 세우거나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체포해서 공을 세운 것을 기록한 것이다. 전투에 나간 사람을 나열하고, 공적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과 다르게 기록하였다.

이 『갑오군정실기』의 유일본 여부는 알 수 없다. 정서를 한 것을 보면 서사(書士)가 베낀 것으로 보이나 몇 벌을 필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도순무영에서 공식으로 만든 보고서라면 더 필사를 해서 여러 권을 만들었을 수도 있으나 어디에도 주도한 사람에 관한 기록은 없다.

『갑오군정실기』에 전제된 많은 공문서는 『고종실록』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騰錄)』 『순무사각진전령(巡撫使各陣傳令)』 『선봉진일기(先鋒陣日記)』 등에 실린 각종 자료들과 동일하다. 이 자료들은 1959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동학란기록(東學亂記錄)』 상하 2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알려져서 연구에 활용된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자료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공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도순무영이 수행한 업무를 보여주는 공문서들의 형식은 아래와 같다.

- 의정부 계문(啓聞)과 관문(關文)

- 국왕의 교서
- 도순무영의 전령(傳令) 감결(甘結) 관(關)
- 출진병대의 첩보
- 지방관들의 첩보
- 충청병사의 등보
- 각 소모사 소모관의 첩보

『갑오군정실기』의 9월과 10월 기록에는 도순무영의 전령이 다수를 접하고 있다. 좌우선봉과 각 파견 병대에 빈번히 명령을 내려서 행군 목적지와 임무 등을 알렸다. 각 병대의 출발과 행군이 늦으면 독촉이 엄하였고, 청주성과 공주성 직행과 같은 새로운 명령도 강한 문구로 전달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지역사례를 전해주는 새로운 보고 문이나 명령서들이 더 수록되어 있다.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활동한 내용이나 진압군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일본군과 관계된 문제는 극히 일부만 전제되어 있다. 수많은 접촉과 보고문서가 있을 것이지만 그런 내용은 모두 빠져있다. 『갑오군정실기』를 편집할 때 미친 외부의 간섭을 추정하게 해준다.

II. 양호도순무영의 설치

1. 도순무사 신정희

1894년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최고지휘부인 양호도순무영을 설치한 것은 조선정부에서 국란에 대처하던 전례를 따른 조치였다. 조선정부에서는 비상시에 처했을 때 특정한 임무를 부여한 순무사를 임명해서 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숙종대인 1710년 순무사 제도를 시행하는 절목을 마련하면서 “순무사가 순시할 때에 구례에 의하여 수사(水使) 이하는 갑주를 갖추고 정중히 맞이하며, 병영에 갈 일이 있으면 병사는 감사를 맞이하는 예에 의하여 정중히 맞이한다.”¹²⁾고 하였다.

영조대 이인좌의 반란을 진압할 때는 4도순무사(四道都巡撫使)¹³⁾에 오명항(吳命恒)을 임명하고 또 남한순무사(南漢巡撫使)¹⁴⁾에 김동필(金東弼)을 임명해서 지역을 정해서 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영조대의 순무사 운용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운용해서 국난을 해결하는 지침이 되었다. 1811년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양서순무영(兩西巡撫營)이 설치한 것이 그러하다.¹⁵⁾

고종대에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역시 순무영제의 전례를 따라 기보연해순무영(畿輔沿海都巡撫營)을 설치하고 이경하(李景夏)를 기보연해도순무사(畿輔沿海都巡撫使)로 임명해서 프랑스군의 내륙을 침범에 대처하였다.¹⁶⁾

1894년에 재봉기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설치한 양호도순무

12) 『비변사등록』 1710년(숙종 36년) 11월 13일.

13) 『영조실록』 1728년 3월 17일자.

14) 『비변사등록』 1728년 3월 19일자.

15) 『순무영등록』 1812년. 奎古4250-66.

16) 『순무영등록』 1866년. 奎15063; 『고종실록』 1866년 9월 8일. 『순무영등록』은 병인양요에 대처해서 설치했던 순무영이 1866년(고종 3) 9월 8일부터 같은 해 12월 3일까지 활동한 내용을 기록했다. 이경하(李景夏)를 기보연해도순무사(畿輔沿海都巡撫使)로 명하고, 순무중군(巡撫中軍)에 이용희(李容熙), 순무선봉장(巡撫先鋒將)에 양헌수(梁憲洙)를 임명한 사실과 순무사에게 내리는 교서와 군사 규율인 계령(戒令) 등을 수록했다. 인력과 군량 및 소요 물자를 강화도와 인접한 경기도뿐 아니라 황해도·평안도·강원도·함경도에서 동원하라는 전령들이 포함되었다. 또 행군 상황 보고와 함께 천자총통(天字銃筒)·화약·수노궁(水弩弓)·장창(長槍)·조적등(照賊燈) 조달한 물자를 기록했다. 문수산성·정족산성 전투에서 공을 세운 군사들의 포상을 의정부에서 논의한 내용과 함께 그 명단이 전제했으며, 출정 인원의 명단과 제반 물품의 종류와 수량, 새로 만든 무기 등의 목록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다.

영은 이러한 전례에 따른 것이었다. 선봉장으로 활약했던 이규태(李圭泰)의 묘비에도 “영조 때의 고사(故事)에 따라 순무영을 설치”했다고 하였다.

또 이 묘비에 양호도순무영은 “당대에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뽑아 그 직임(職任)을 채웠다.”¹⁷⁾고 표현한 내용이 있다. 묘비 작성자가 문무 겸비한 인재로 가리킨 사람들에 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묘비 주인인 선봉장 이규태를 포함해서 도순무사, 중군, 종사관 등 주요 직임을 맡은 인물들로 보인다.

양호도순무사 신정희 선임된 까닭은 9월 26일자로 내린 교서에 나타나 있다.¹⁸⁾ 긴 문장이지만 전제해서 소개한다.

“開府하고 군사를 통솔하는 의리를 본받아 편의에 따라 다스리게 하니 兩湖의 중대한 임무이고, 都元帥에 상응하는 품계로 巡撫의 직임을 簡選하니 재상의 높은 반열이다. 그대는 직임을 공경히 수행할지니,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도다. 돌아보건대, 이 新營의 설치는 실로 匪類의 소요에서 연유하였다. 州郡에 못된 백성들이 많으니 아, 어쭙잖게 날뛰는 무리로구나. 하지만 京師에 禦侮하는 곳이 있으니, 복소리 잦아들을 어찌하리오. 태평성대를 누린 지 오래이니, 어찌 차마 백성의 離叛을 말하랴. 의연히 성루에서 지휘하여 밤을 지새우는 나의 근심을 나눌 자 누구인가. 卿은 世家の 훌륭한 재목이며 宿將의 뛰어난 후예이다. 扈衛副將으로서 일찍부터 명망을 드러낸 것이 얼마이더냐. 전에 中營을 맡았을 때 대단한 공적을 쌓은 것을 가상히 여기고 있다. 이에 경에게 행 行兩湖都巡撫使를 제수하노니, 경은 은혜로운 명에 공손히 보답하여 신묘한 계책을 펼지어다. 列郡을 安撫할 방도를 강구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먼저 錢穀을 넉넉히 쌓아야 할 것이고, 양호를 진정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무력을 쓰지 않고 굴복시키는 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아,

17) 「兩湖巡撫先鋒將李公墓碑銘并序」.

18) 『승정원일기』 1894년 9월 26일자. 經筵廳 侍讀 洪顯哲이 지어 올린 것이다.

오랑캐를 칠 方略을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신중함을 견지한 趙充國을 익혀야 할 것이고, 旌旗의 精彩를 새롭게 바꾸고자 한다면 의당 엄격함을 숭상한 李光弼을 귀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고딕체로 표시한 것에서 보여주듯이 이 교서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은 ① 양호도순무사의 지위와 위상, ② 양호도순무영 설치의 연유, ③ 도순무사 신정희에 대한 신뢰, ④ 도순무사의 책무 등에 관한 것이다.¹⁹⁾

양호도순무사의 임무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해서 여러 군현은 안무(按撫)하는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편의중사를 의미하는 구절이 있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군대를 통솔할 신영(新營)을 구성하되 군사에 관한 전권을 부여한다는 말이다. 병인양요 당시 도순무사는 군사를 거느리고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군과 선봉장이 군사 지휘관으로 전투 현장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1894년에도 서울 도성에 위치해서 총괄할 것이었지만 편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런 권한 부여는 1894년 전국 많은 군현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봉기하고 있던 사정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일일이 군사문제를 국왕과 정부에 보고해서 허락을 받고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도순무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서 시의 적절히 진압을 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신정희는 19세기 순조 이래 고종대까지 3대에 걸쳐 장신(將臣)을 역임해온 무관 명문가에 속한 무장이었다.²⁰⁾ 증조부인 신홍주(申鴻周, 1772~1829)는 좌우포도대장, 평안도·전라도·함경도 병마절도사와 삼도통제사·배왕대장·어영대장·훈련대장과 병조참판을 역임하였고, 아버

19) 이 부분은 신영우, 2011, 「兩湖都巡撫營 指揮部와 日本軍 간의 갈등」, 『군사』 81, 참고.

20) 장필기, 2010, 「鎭川 논실의 平山申氏 將臣閥族家系와 申鴻周」, 『역사와 담론』 57, 호서사학회.

지 신현(申櫓, 初名 觀浩, 1811~1884)은 철종과 고종대의 장신으로서 여러 병영의 대장과 한성판윤·형조판서·공조판서·병조판서를 역임하고 무관으로서 정1품 보국숭록대부에 오른 인물이다.²¹⁾

신현과 신정희는 유장(儒將)으로 이름이 높았다. 고종은 강화도조약과 조미수호조약을 체결할 때 신현을 전권대관으로 보냈고,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영민”하면서 공사에 엄격한 신정희를 신뢰하여 어영대장·금위대장·장어대장·전영사·후영사·통위사 등으로 경군 병영을 지휘하게 하였다.²²⁾

신정희는 포도대장으로 유명해진 인물이었다. 좌포도대장과 우포도대장을 번갈아 맡으면서 과감하게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혼란한 ‘시국을 구제할 인재’라는 호평까지 받았다. 그리고 한성판윤·형조판서·공조판서를 역임한 후 호위부장으로 있으면서 내무독판(內務督辦)으로 근대식 군제를 만드는 과업에 노력하기도 했다.²³⁾

2. 중군 허진

『갑오군정실기』 제10책은 유영장졸(留營將卒)과 출진장졸(出陣將卒), 그리고 기공(紀功)을 나누어 기록하였다. 유영장졸은 지휘부인 도순무영에 소속되어 활동한 사람들의 직함과 명단을 기록한 것이고, 출진장졸은 좌선봉 통위영, 우선봉 장위영, 그리고 경리청, 심영(沁營)에서 출진한 장병을 기록한 것이다.

21) 최진욱, 2010, 「申櫓(1811~1884)의 생애와 활동」, 『역사와 담론』 57, 호서사학회. 신현은 흥선대원군과 고종이 신뢰한 무장으로서 병인양요 직후에는 군비강화책을 제시한 『民堡輯說』 등 병서를 저술하였다.

22) 「每日申報」 1932년 1월 12일자 4면기사. 雨田生, 「申年の申氏」 “(三) 平山人이요 觀浩의 子라 儒學이 兼備하여 高宗戊寅에 大將을 任命하여 十七年間 國家의 重鎮이 되었다” 1878년 御營大將을 시작으로 여러 군영의 대장을 역임한 신정희는 민간에 將臣과 포도대장으로 刻印된다.

23) 신영우, 2010, 「將臣 申正熙의 仕宦 이력과 활동」, 『역사와 담론』 57, 호서사학회.

유영장졸은 중군(中軍), 종사관(從事官), 참모사(參謀士), 참모관(參謀官), 별군관(別軍官), 대솔군관(帶率軍官), 집사(執事) 순으로 나와 있다.

도순무영의 도순무사 다음의 제2인자는 중군이다. 중군은 경군 각 병영과 각 도의 병영 등에서 장신이나 병사의 지휘를 받고 병력을 거느리는 임무를 맡는 위치에 있다. 경군 병영의 장신이 국왕을 호위해서 외지로 나갈 경우 중군이 도성 안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른다. 병인양요 당시에는 기보순무영의 선봉중군 이용희(李容熙)가 병력을 지휘해서 일선까지 나아갔다.

도순무영의 중군에는 9월 24일에 허진(許璉)이 선임되었다. 허진은 무반 명가로 유명한 양천 허씨 집안의 일원으로 부산첨사·부평부사·전라우수사·병조참의·병조참판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중군으로 선임되기 21일 전인 1894년 9월 3일에는 경무사에 임명되었다.²⁴⁾

경무청은 갑오개혁에 따라 신설한 관청으로서 좌우포도청을 통합하여 궐내의 순찰과 함께 오늘날의 경찰과 같이 도성 5부의 경찰 사무를 맡는 것이 임무였다.²⁵⁾ 경무사 허진이 중군이 된 것은 군대와 경찰을 통합해서 동학농민군 진압을 책임진 기구가 도순무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허진은 일본공사관에서 환영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대원군파에 속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대원군은 청일 간 전투에 청국군의 승리를 원했던 사실이 청국군 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혀져서²⁶⁾ 곤욕을 치렀고, 평안감사 민병석(閔丙奭)에게 보낸 편지도 노획되어 이노우에 가오루 일본공사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다.²⁷⁾ 결국 대원군

24) 『대한제국관원이력서』, 허진.

25) 『고종실록』 1894년 7월 14일. “경무청 관제와 직무. 1. 좌포청(左捕廳)과 우포청(右捕廳)을 합하여 경무청(警務廳)을 설치하고 내무아문에 소속시키는데 한성부 5부 관내 일체의 경찰 사무를 맡는다.”

2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권, 七. 和文電報往復控 (60) 平壤戰鬪에서 노획한 大院君이 淸國에게 보낸 서한 발송의 件. 이 전문에 발송된 날이 9월 10일(양력 10월 8일)이다.

2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권, 八. 日淸事變前後 機密公信 및 機密書 (3) 向背를 정하지

의 섭정 자리는 이를 빌미로 물러나게 되는데 대원군파로 드러난 허진도 그 때문에 기피인물이 되었다.

경무사로 발탁된 것도 대원군은 “동학당을 선동하는 비밀명령을 전하였을 때 전 경무사 이윤용(李允用)이 이를 정탐”하자 사소한 이유를 붙여서 “이윤용의 관직을 박탈, 자기 당 소속인 허진을 기용해서 경무사로 삼았”다고 하였다.²⁸⁾

대원군이 동학농민군의 재봉기를 부추긴 사실은 이노우에 일본공사가 대원군의 측근들을 조사해서 알고 있었다.²⁹⁾ 심지어 “동학당이 일본군의 군용 전신선을 절단하고 병참부 습격하고 상인과 인부들을 학살한 것이 모두가 정부와 관계”가 있다고 일본군 정보망은 파악하였다.³⁰⁾

평양에서 발견된 대원군의 편지에 대해 일본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는 추궁하거나 책망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노우에 가오루 공사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메이지 유신 때부터 정변의 중심에 있으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정국을 반전시켜온 사람이었다. 강화도조약 때는 실무를 맡은 부사로서 국제법이나 외교관행을 잘 모르던

못하는 朝鮮高位層 태도 추궁과 在韓日公館 稟電節次. 일본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은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그 편지를 이용하도록 10월 1일(양력 10월 29일)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낸다. “平壤에서 입수한 大院君이 平安道 觀察使 閔丙奭에게 보낸 書翰과 李載冕·金宏集의 서한 原本 도합 3통을 公使의 電信 요청에 따라 보내오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서한을 읽어 본 바로는 日·清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내심 주저하고 있는 흔적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바야흐로 朝鮮의 社稷이 ‘危急存亡之秋’에 있는 때이므로, 대원군을 위시해서 이 정도의 말을 한 것은 굳이 잘못을 추궁할 가치가 없사오며 지금 새삼 다시 이를 증거로 해서 통렬하게 저들을 책망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를 이용하느냐 아니 하느냐는 전적으로 閣下의 높으신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2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5권, 五. 機密諸方往 二 (11) 井上公使의 大院君祖孫 箝制策內申 및 東學黨 鎮撫를 위한 日兵增派 요청.

29) 이상백, 1962, 「동학당과 대원군」, 『역사학보』 17; 배항섭, 1997, 「전봉준과 대원군의 ‘밀약설’ 고찰」, 『역사비평』 39.

3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5권, 六. 內政釐革의 件 一 (4) 大院君의 東學黨 선동에 관한 件.

조선대표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불평등 조항을 슬그머니 포함시켜서 체결시킨 전력이 있었다. 그는 평양에 보낸 편지를 빌미로 대원군을 정권에서 제거하려고 하였다. 바로 그런 시기에 대원군파의 허진이 도순무영 중군으로 선임된 것이다.

일본공사관에서는 도순무영이 불편했을 것이다. 도순무사 신정희와는 화급한 군사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할 수 없었다.³¹⁾ 군국기무처 총재관 김홍집이 전국 각지에서 동학농민군과 진압군 간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시기인 10월 23일에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사정을 토로하고 있었다. 중군 허진도 일본군의 잦은 요청을 전달할만한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때문인지 주요 군사문제는 일본공사가 외부대신을 만나서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³²⁾ 도순무사는 일본공사관에 가지 않는데 외부대신 김윤식은 수시로 일본공사관에 출입하면서 이노우에 가오루 공사의 지침을 받아왔다.

3. 종사관 정인표·홍승운

도순무사와 중군 다음의 직위는 종사관이었다. 종사관은 『갑오군정실기』에 3명이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련 임무를 맡았던 사람은 정인표와 홍승운이었다. 군영의 종사관은 ‘경력이 있고 사무에 숙련된 사람’³³⁾을 뽑아서 쓰는 것이 전례였다.

31) 『금영내찰(錦營來札)』 도원(道園). “匪徒의 기세가 위축되어 정말 물러갈 만합니까? 순무사 영감이 일본군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巡撫令不行於日兵故) 온 편지를 운양(雲養, 김윤식)에게 보냈는데, 그 답장이 이와 같습니다.”

32) 『속음청사』 1894년(고종 31) 9월~12월 기록;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외부대신 김윤식 관련 문서 참고.

33) 『일성록』 1779년(정조 3) 7월 11일. “從事官當以有履歷鍊事務之人差擬”; 『일성록』 1780년(정조 3) 10월 16일. “금위영 종사관의 望單子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한營의 財用이 전적으로 이 軍色에 의지한다. 그들이 들고 날 때에 살피고 단속하는 것은 郎官이 종합적으로 밝히고 법을 지키는 데 달려 있으니, 반드시 久任인 자라

도순무영은 각종 공문 수발과 주요 방침 결정과 함께 군수미와 군수 전 등 막대한 군사비를 사용하는데 이런 업무는 역량이 있는 소장관료가 맡는 것이 적합하였다. 처음 선임된 황장연은 홍문관 교리를 역임하고 동지사를 따라 청국에 서장관으로 다녀온 인물이었다. 하지만 당시 외지에 있어서 즉각 부임할 수 없게 되자 교체하였다.³⁴⁾

경연청 시강(侍講)으로 있던 정인표는 이견창, 이견승, 정원하, 홍승헌 등과 함께 양명학의 학맥을 이은 인물로서 학식이 있고 실무에 밝은 인물이었다.³⁵⁾ 1892년 37세의 늦은 나이로 문과에 합격했지만 역량을 인정받아서 요직을 연이어 맡았다. 그리고 홍문관 부교리를 거쳐 장위영의 군사마(軍司馬)와 병조정랑을 지냈다.³⁶⁾ 일본군 혼성제9여단이 서울에 들어와 위협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강요하던 1894년 7월에는 남산 노인정 회담에 교정청 관원으로 내무독판 신정희를 수행해서 참여하기도 했다. 9월에는 내무아문 주사와 경연청 시강을 맡았는데 이때 도순무영의 종사관에 발탁된 것이다. 홍승운(洪承運)도 뒤늦게 45세가 되는 1889년에 알성시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와 내무주사 등 요직을 역임하였다. 모두 도순무사 신정희와 군영이나 병조 그리고 내무부에서 함께 일을 했던 연고가 있는 인물들이었다.

III. 양호도순무영의 직제와 인원

9월 24일부터 도순무사와 중군, 그리고 종사관 2명이 영기(令旗)를

야 일의 완성을 책임 지을 수 있고 또한 일에 정통할 수가 있다.”

34) 그럼에도 『갑오군정실기』에는 그 이름이 기재되었다.

35) 『춘경대집(春耕臺集)』. 이 문집초고본은 정인표의 학문과 교류 등을 잘 전해주고 있다.

36) 신영우, 2007, 「한말 일제하 충북 진천의 유교지식인 연구 - 洪承憲·鄭元夏·鄭寅杓을 중심으로 -」, 『광무양안과 진천의 사회경제 변동』, 혜안 참고.

받고, 군복을 착용한 다음 군무를 보기 시작했다. 도순무영 직제와 인원 차출은 도순무사 신정희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다. 먼저 신정희가 호위 부장으로 이끌던 호위청에서 서리 7명을 도순무영에 차출하고, 서사(書寫) 등도 불러왔다. 그리고 도순무영의 중군과 종사관소에서 일을 할 인원을 통위영 총어영 장위영 용호영 경리청에서 차출하는 동시에 도순무영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가져오게 하였다.

도순무영은 9월 26일 왕명에 의해 한성부에 설치하였다.³⁷⁾ 이와 함께 참모사 5명과 별군관 7명을 선임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연이어 참모관을 임명해서 직제를 확충하였다. 또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의 감사에게 관문(關文)을 보내서 도순무영의 설치 사실을 알렸다.

다음 <표 1>은 도순무영의 지휘부에 소속되어 활동한 인물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도순무영 주요 직함과 명단

직함	인원	성명	비고
중군	1	경무사 허진	
종사관	3	전교리 황장연, 시강 정인표, 전교리 홍승운	황장연은 在外草記 減下
참모사 (參謀士)	7	전도사 김근식, 군무주사 오진영, 전사과 홍건조, 전사과 박영세, 전수봉관 신영국, 전주사 이명선, 유학 이기혁	박영세(起復)
참모관 (參謀官)	1	유학 한용익	
별군관	27	전부사 이희중·이병세, 부평부사 신 립, 전첨사 구연항, 전부사 신좌희, 공무주사 구연수, 학무주사 안연중, 전감찰 정달인, 전오위장 유일환, 첨지중추 이교석, 전부호군 구달조, 군무참의 구주현, 출신 신용균, 유학 조충현, 출신	

37) 『갑오군정일기』 1894년 9월 26일. “司謁口傳 --- 巡撫營更爲移設于漢城府”

직함	인원	성명	비고
		박항래, 첨지중추 이민섭·조국현·이기준·홍필유, 전첨사 유공수, 전부호군 정규혁, 전선전관 유석관, 전첨정 강필로, 출신 신일균·이병서, 상리통령 이성근·구종설	
대솔군관	16	전부사 손병호·한치익·조진태, 전현감 박명환, 전첨정 박태운, 원외랑 백완혁, 전수문장 유태현, 전사과 이성로, 전오위장 박완룡, 전중군장의태, 전오위장 이시영·임학선·박윤석·김진학, 전감찰 김상영, 출신 이종렬	
계	55		

도순무사에게 “군사를 통솔하는 의리를 본받아 편의에 따라 다스리게” 한다는 교서는 군권 행사의 독자성뿐 아니라 도순무영 구성에서도 전권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도순무영에 동원된 경군 각 병영과 차출된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참모사와 별군관 그리고 대솔군관으로 활동할 책임자를 뽑는데 현직과 전직 지방관을 비롯해서 각 부에서 재직하던 인물 등을 망라해서 선임하였다. 현직 군무참의와 함께 군무주사와 공무주사 그리고 학무주사가 참모사와 별군관으로 들어왔다. 현직 부평부사와 첨지중추부사도 포함되었고, 전직은 부사·현감·부호군·첨사·선전관·감찰·주사·수문장·오위장 역임자들이 참여하였다. 관직을 지내지 않은 유학·출신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참여시켰고, 후보상을 활용하기 위해 상리통령(商理統領)도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도순무영이 경군 모든 병영을 총동원하는 체제로 조직해서 운영한 것이다. 도순무사 신정희가 지휘하던 호위청을 비롯하여 경군 모든 병영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도순무영에 소속시켰다. 『갑오군정실기』에는 집사를 비롯해서 별무사 이하의 명단을 적고 소속을 밝혀놓았다. 이를 검토하면 도순무영의 실상을 알게 된다.

도순무영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차출된 병영은 호위청이었다. 직함을

보면 집사 17명, 본군관 3명, 별무사 20명, 서자적 14명 등 54명이 호위청 소속이었다. 그뿐 아니었다. 도순무사의 근무처인 대장소(大將所)에서 일하는 인원 220명이 모두 호위청 소속이었다. 호위청은 또 중군의 근무처인 중군소(中軍所)에 1명, 종사관 근무처인 종사관소에 13명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기타 여러 부서에서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 27명이 더 있었다.

도순무영에 속한 직책의 총원은 526명이었다. 그런데 이중 도순무사 신정희를 포함한 다수가 호위청 소속으로 나타난다. 병영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소속이 기재되지 않은 132명을 빼면 394명이 호위청 소속이었다. 즉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인원이 호위청에서 파견된 것이다.

출진장졸, 즉 충청도와 전라도로 출정해서 동학농민군 진압에 나선 경군은 통위영과 장위영 그리고 경리청에 소속된 장졸이었다. 도순무영, 즉 서울의 지휘부는 주로 호위청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되었지만 경군 병영인 용호영, 통위영, 장위영, 총어영, 경리청 소속 병사들도 차출되었다.

소속을 기재해서 차출한 병영을 알 수 있는 도순무영 집사 이하의 직함과 성명은 다음과 같다.

〈표 2〉 도순무영의 경군 병영 차출 현황

직함	인원	성명	비고
집사	29	호위청 - 임학기 이명규 유상우 정기택 윤의손 박두형 최응균 이기형 김제웅 김경수 신석모 윤홍인 박윤희 송계복 김기중 유금환 김태중 용호영 - 김준모, 최완근 통위영 - 윤공선, 고정필, 이해원 장위영 - 유문환, 김준희 총어영 - 박준상 황승흡 어득찬 경리청 - 우하선 이용진	호위청 17 용호영 2 통위영 3 장위영 2 총어영 3 경리청 2
본군관	3	호위청 - 함홍식 원응환 양학수	호위청 3
별무사	33	호위청 - 최창기 문기원 이봉식 천계주 이석봉 이정근 우진석 배명춘 반형식 박도형 이완엽 장득근 이항진 이완영 오	호위청 20 통위영 5 장위영 3

직함	인원	성명	비고
		홍엽 유진기 임화진 박신양 김중숙 전원식 통위영 - 나원규 김영호 양진풍 안세창 김진성 장위영 - 이승근 김용원 허준 용호영 - 조순중 총어영 - 이계근 유성택 염상인 이치홍	용호영 1 총어영 4
마의 (馬醫)	1	박효승	소속 기재 없음
서자적 (書字的)	19	호위청 - 14 통위영 - 1 장위영 - 1 용호영 - 1 총어영 - 2	성명 기재 없음
각색패두 (各色牌頭)	10		소속 성명 기재 없음
계	65		

집사와 본군관, 그리고 별무사와 서자적도 호위청 소속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경군 각 병영에 배치했던 도순무사 행차시에 앞장서는 의장병인 전배순령수와 감옥을 관장하는 뇌자, 그리고 밤중에 등불을 드는 등룡군과 군막을 책임진 장막군도 두었다.³⁸⁾

〈표 3〉의 대장소 인원을 보면 도순무사의 대장소에 배치된 220명 전원이 호위청 소속이다. 전배순령수 36명, 뇌자 36명이 모두 호위청 소속이었다. 또한 대장소 인원의 절반이 넘는 총수와 창수 등 병사 114명과 등룡군과 장막군 26명도 호위청 소속이었다.

교서에 나오는 것처럼 도순무사는 단순한 한 병영의 지휘관이 아니었다. “도원수에 상응하는 품계로 순무의 직임을 간선(簡選)하니 재상의 높은 반열”이라고 그 지위를 명시하였다. 『갑오군정실기』의 기록에 나타난 대장소의 인원 배치를 알 수 없으면 이런 교서의 표현이 의미하는

38) 육사 한국군사연구실편, 1977, 『韓國軍制史: 近代 朝鮮後期篇』.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표 3〉 대장소(大將所) 배치 인원

임무	인원	비고
전배순령수(前排巡令手)	36	
뇌자(牢子)	36	
획수(劃手)	4	
관이령전수(貫耳令箭手) ³⁹⁾	2	
숙정패직(肅靜牌直)	2	
등룡군(燈籠軍)	16	
장막군(帳幕軍)	10	
난후총수(欄後銃手)	65	
창수(槍手)	23	
기수(旗手)	13	
배포수(陪砲手)	13	이상 호위청
	계 220	

〈표 4〉는 중군소의 배치 인원이다.

중군소는 경군 각 병영에서 차출된 인원 50명으로 구성되었다. 통위영 6명, 장위영 5명, 경리청 5명, 총어영 17명, 용호영 16명, 호위청 1명이다. 중군 허진은 경무사를 겸하고 있었지만 경무청에 소속된 인원은 들어있지 않았다. 경무청은 일본의 경찰제도를 본뜬 신설기관으로서 서울의 형무소를 관할하고 5부의 분서에 순검을 파견해서 관내를 순찰하는 등 권한이 막강하였다.⁴⁰⁾ 광화문 등 수문장청을 순검 수직소로 삼고 대궐문을 지키는 기능도 하였다. 그래서 경무사는 정부 대신보다 강력한 권력 행사가 가능한 직책이었지만 소속 관원인 경무관이나 총순

39) 貫耳箭 : 전진(戰陣)에서 군율을 어긴 사형수(死刑囚)의 두 귀에 꿰어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던 화살, 또는 그 형벌(刑罰). 모양이 영전(令箭)보다 짧고, 살촉이 뾰족함

40) 『경무청관원이력서(警務廳官員履歷書)』 奎20713, 해제.

(總巡) 또는 순검(巡檢)을 도순무영의 중군소에 배치하지 않았다.

중군 허진은 11월 17일에 경무사 직책을 떠나게 된다.⁴¹⁾ 그런 까닭에 경무청 관리가 중군소 차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선임된 뒤 부임도 하지 않은 종사관의 이름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누락시켰을 것 같지는 않다.

〈표 4〉 중군소(中軍所) 배치 인원

직함	인원	비고
전배순령수(前排巡令手) 14	3	통위영
	2	장위영
	3	용호영
	3	총어영
	3	경리청
뇌자(牢子) 12	3	통위영
	3	장위영
	3	용호영
	3	총어영
관이령전수(貫耳令箭手) 2	2	경리청
등룡군(燈籠軍) 6	3	용호영
	3	총어영
장막군(帳幕軍) 3	3	총어영
배기수(陪旗手) 10	5	용호영
	5	총어영
인기수(認旗手) 2	2	용호영
인신직(印信直) 1	1	호위청
	계 50	통위영 6, 장위영 5, 경리청 5, 총어영 17, 용호영 16, 호위청 1

〈표 5〉는 종사관소에 배치된 인원이 호위청 소속 13명인 것을 보여

41) 『대한제국관원이력서』 허진.

준다. 종사관은 실무를 맡는 직책이다. 『고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 도순무영의 종사관에 관한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는 까닭에 이 시기에 수행했던 업무에 관해서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종사관 정인표의 문집초고본인 『춘경대집』에 수록된 3편의 글에서 일부 내용이 확인된다.⁴²⁾

여기 실린 「고시문(告示文)」은 정인표가 직접 쓴 글인데 동학농민군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진압군이 파견되었으니 귀화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동학농민군을 대상으로 쓴 방문이나 계시문 등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춘경대집』에 함께 전제한 「전령호서열읍(傳令湖西列邑)」도 역시 같은 내용이다.

「십가통규(十家統規)」는 향촌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농민통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모두 5개 항목인 이 통규는 10호로 1통을 만들고, 통수를 정해 통내의 사정을 잘 파악하며, 모든 민호가 대문 위에 호구 상황을 기록한 패를 걸고, 수상한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가작통을 강화해서 농민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계획한 이 제도는 시행할 수 없었으나 진압 시기는 물론 진압 이후에도 양반층이 사회혼란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실상을 보여준다. 종사관은 이러한 전령이나 포고문, 그리고 농민통제책을 구상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였다.

종사관소에 배치된 인원을 보면 문서 작성이나 필사하는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표 4>에 나오는 서리나 서기 또는 문서직이 업무와 관련된 직책으로 보인다.

42) 『춘경대집』에 정인표가 도순무영 종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작성했던 「告示文」「十家統規」「傳令湖西列邑」 등이 수록되어 있다.

〈표 5〉 종사관소(從事官所) 배치 인원

직함	인원	비고
전배순령수(前排巡令手)	2	
뇌자(牢子)	4	
등룡군(燈籠軍)	2	
배기수(陪旗手)	3	
장막군(帳幕軍)	2	이상 호위청
	계 13	

도순무영은 규모가 상당했던 군사지휘부였다. 따라서 갖가지 직무를 부여한 인원이 필요했다. 사방을 다니며 사정을 엿보는 망보는 일도 해야 했고, 각 건물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했다. 서리와 함께 문서를 베끼거나 문서나 창고지기 또는 사환도 배치되어야 임무도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런 직책은 대장소와 중군소를 오가며 문서를 전달하는 일 등과 함께 출진한 병대에게 필요한 전령을 전하거나 물자를 보내는 업무 등에 필요했을 것이다.

〈표 6〉 도순무영의 기타 인원

직함	인원	비고
호분위	4	말 4필
사후(伺候)	19	
아기수(兒旗手)	21	
각청방직(各廳房直)	13	
복직(卜直)	1	
경포수도영장(京砲手都領長)	1	
교장(敎長)	3	통위영 장위영 경리청 각 1인
서기(書記)	3	통위영 장위영 경리청 각 1인
금군(禁軍)	3	
기사(騎士)	3	
상리집사(商理執事)	1	

직함	인원	비고
사후병정(伺候兵丁)	6	통위영 장위영 경리청 각 2인
서리(書吏)	14	친군영 4, 호위청 7, 총어영 1, 통위영 1, 광무국(鑛務局) 1
서사(書寫)	2	호위청 1, 전호조(前戶曹) 1
고직(庫直)	3	호위청 2, 총어영 1
사령(使令)	10	호위청 6, 총어영 2, 경리청 2
문서직(文書直)	11	호위청 6, 친군영 2, 통위영 1, 장위영 1, 총어영 1
사환군(使喚軍)	4	호위청 1, 친군영 1, 총어영 2
	122	

서울의 도순무영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사람들이 도순무사를 포함해서 526명이었다는 사실은 도순무영의 위상을 새롭게 알려준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였던 것을 군영의 규모로 전해주는 것이다.

일본공사관은 청과의 전쟁에서 후방의 안정을 위해 조선정부에 진압군 파견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동학농민군의 완전 제거를 결정한 것이었다.

외부의 적인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해서 국왕까지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지만 고종과 관료들은 이 사태를 왕조의 존폐까지 위협하는 위기로 보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본세력을 축출하겠다고 봉기한 동학농민군을 더 위험한 존재로 보았다. 그런 까닭에 국정을 책임 맡은 김홍집과 같은 고위 관료는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위해 더 많은 일본군을 파견해달라고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간청까지 하고 있다.⁴³⁾

43) 『금영내찰(錦營來札)』 도원(道園). 김홍집은 선봉 이규태에게 보낸 편지에서 많은 일본군을 파견해달라고 간청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일본군을 많이 파견해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일본 공사는 여전히 신중하여 많이 파견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일본과 청국간의 전쟁이 지금 한창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IV. 양호도순무영의 출진장졸과 주요 활동

1. 좌선봉 출진장졸

도순무영은 선봉으로 9월 24일 통위영 영관 이규태를 선임해서 선발부대를 이끌고 출진하고, 이어서 중군 허진이 대군을 거느리고 출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가 증파되어 오고, 일본공사관에서 경군 병대까지 일본군 장교가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요함으로써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군의 출진은 보류되었다.

출진장졸들은 선봉 이규태가 지휘하게 되었다. 중군 허진이 출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위 현장지휘관은 선봉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규태는 통위병과 교도병을 이끌고 출진하기로 하였는데⁴⁴⁾ 장위영과 경리청 등 다른 병대도 선봉장의 지휘를 받도록 전령을 내렸다.⁴⁵⁾ 교도중대는 일본군 장교에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본 장교가 같이 가도록 하였다. 실제로는 일본군 장교가 교도중대를 지휘한 것이다.

그러나 후비보병 제19대대가 같은 시기에 남하하게 되자 사정이 또 달라졌다.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소좌가 경군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선봉장 이규태도 그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규태는 경군 다른 파견군을 지휘 통제하면서 일본군 장교에게 다시 지휘를 받는 위치로 전락되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시 경군 병영을 기습해서 무기와 탄환을 탈취해서 일본군 진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44) 위 자료. “선봉장이 내일 떠나는데, 인솔하여 가는 군대는 교도병(教導兵) 200명과 통위병(統衛兵) 200명을 합한 400명입니다. 일본공사관이 파견한 사관(士官) 2명이 약간의 병사를 인솔하여 교도병과 함께 가기로 하였습니다.”

45) 『양호우선봉일기』 10월 7일. 순무영에서 보낸 전령에 장위영 등 다른 경군에게 선봉장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하였다. “선봉장이 통위영의 병정 2중대를 거느리고 출발하므로, 영관 직위 이하는 그의 지휘를 받도록 하라. 혹시라도 기회를 놓쳐 군율을 범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이를 돌려받지 못해서 출발을 늦게 하였다.⁴⁶⁾

실제로 이규태는 통위영 병대만 지휘해서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서로군과 함께 공주성으로 직행하였다. 이규태는 우금치전투에 경리청 병대와 함께 참여했지만 일본군 장교의 지시를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서로군 중대장 모리오(森尾) 대위와 충돌⁴⁷⁾하는 험악한 지경까지 가기도 했고, 그 보고를 받은 미나미 소좌는 이노우에 공사에게 이규태의 소환을 요청하고 있었다.⁴⁸⁾

선봉장 이규태가 거느린 통위병에는 영관 장용진(張容鎭)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관 또는 부영관이 지휘하는 장위영과 경리청 파견군과 비교되는 것으로 선봉장의 지위를 보여준다. 병정의 수는 287명이지만 지원세력이 상당한 규모였다. 참모사 1명을 포함해서 참모관 5명, 그리고 별군관이 18명이나 가세하고 있었다. 또 출진한 병영이 아닌 용호영과 충어영에서 차출한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 400명이 넘는 병력이 선봉장 이규태가 지휘하였다.

『갑오군정실기』의 출진장졸 기록의 처음 항목은 ‘좌선봉 이규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장위영 병대를 지휘하던 이두항이 11월 26일 우선봉으로

4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四.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一 (27) 華城守備交替兵의 急派要請과 朝鮮軍 領率官姓名의 問議에 關한 交信 4) 上件 領率官姓名 및 實情回報. “教導兵과 統衛兵은 巡撫先鋒 李圭泰가 인솔하여 육로로 水原을 향해 먼저 가고 江華兵은 江華中軍 黃憲周가 인솔하여 수로로 忠淸道 魯城 지방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統衛兵 200명과 江華兵 100명은 洋槍과 탄환이 없어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二. 各地東學黨 征討에 關한 諸報告<제1권 제7장의 후반부> (2) 東學黨 征討略記.

4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五.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二 (30) 東學徒鎭定에 關한 諸報告 및 意見具申 2) 意見具申. “동학당 토벌선봉군대장 李圭泰. 위의 사람은 열렬히 동학당에 가담한 사람이며 모든 처사가 애매모호하고 지휘관의 명령을 왜곡, 이제까지 한번도 전투일선에 나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전투 중에 자기 편의대로 숙소에 돌아오는 등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며 군대에서는 해로운 인물이므로, 대장 이규태를 소환하시어 빨리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되고, 선봉장 이규태가 좌선봉으로 위상이 격하되었기 때문이다.⁴⁹⁾

〈표 7〉 좌선봉 이규태가 지휘한 통위영의 출진장졸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장교	先鋒將 1		
	領官 1	장용진	
	隊官 2	오창성 신창희	
	教長 4	박상길 고학석 황수옥 김상운	
	書記 2	정도명 김원석	
병력	兵丁	284	糾飭 이하
	候兵	9	
	輜重兵	14	
	帳幕軍	5	
	卜馬軍	7(卜馬 7필)	
	騎馬夫	9(騎馬 9필)	
출진장졸 계	337		

〈표 8〉 좌선봉 지원 병력

구분	인원
參謀士	이규백
參謀官	권종석 이구영 황승익 이승욱 정도영 5
別軍官	유석용 이건영 송흠국 허 완 이필영 이재화 박정환 임형준 임병효 이진원 이종진 이지효 이흥교 김진옥 윤영렬 조중석 이계훈 박흥기 18
軍官	오인경 1
別武士	김태형 - 용호영 1, 안성관 - 총어영 1
書子的	김창근 - 용호영 1, 안세현 - 총어영 1
輜重兵	통위영 4

49) 『고종실록』, 1894년(고종 31) 11월 26일. “양호도순무영에서 아뢰기를, ‘적들이 모였다 흠어졌다 하는 것이 일정함이 없습니다. 선봉장 이규태를 좌선봉장으로 차 하하고, 장위영 영관 이두황은 여러 번 전공을 세웠으니 우선봉장으로 차하하여, 지역을 나누어서 토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구분	인원
前排巡令手	용호용 2, 총어영 2
牢子	용호영 2, 총어영 2
燈籠軍	경리청 2
帳幕軍	용호영 2
卜直	용호영 1
長夫	통위영 3
牙兵	총어영 2
騎馬夫	용호영 4, 총어영 4 (기마 8필)
卜馬軍	용호영 3, 총어영 3 (복마 6필)
계	65

장위영은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병영이었다. 1893년부터 1894년 초까지 장위영의 대장인 장위사(壯衛使)는 한규설(韓圭謨)과 이종건(李鍾健)이 번갈아 맡아왔다.⁵⁰⁾ 일본군의 경복궁 기습 이후에는 조희연(趙羲淵)이 장위사로 발탁되었다.

장위영의 영관으로 1893년부터 활약했던 주요 인물이 홍계훈(洪啓薰)이었다. 고종과 민비의 신뢰를 받은 홍계훈은 충청병사로 청주에 부임했던 시기에 충청병영에 신식무기를 사들이고 병력을 확충해서 정예병으로 만들었다.⁵¹⁾ 홍계훈이 장위영에 복귀했을 때는 많은 청주병들이 장위영에 편입되었다. 1893년 봄 보은 장내리에서 동학도들이 집회를 열자 홍계훈이 청주까지 장위영 병정 3조를 인솔해서 다녀온다.⁵²⁾

1894년 봄 동학농민군의 1차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양호초토사에 임명된 홍계훈이 지휘해서 전라도로 간 군대도 장위영 병대였다. 이때 대관(隊官)으로 5(隊)를 이끌고 함께 간 오건영·오원영·이두황(李斗璜)·이학승·원세록(元世祿)이었다.⁵³⁾ 이중 이두황과 원세록이 2차봉기에 장위

50) 『고종실록』 『승정원일기』의 1893년과 1894년의 장위사 한규설, 장위사 이종건 기록.

51) 『모충사실기(慕忠祠實記)』. 청주 모충사 앞에 병사홍계훈불망비가 있다.

52) 『승정원일기』 1893년 4월 8일.

영 병대를 이끌고 남하하게 된다. 홍계훈은 2차봉기의 진압군에는 가세하지 않았다.

국왕이 신임하는 홍계훈이 장위영을 정예병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봉기를 맞아 경군 파견을 결정할 때 9월 19일 가장 먼저 장위영을 선정하였다.⁵⁴⁾ 도순무영이 설치되기도 전에 결정된 것이다. 장위영은 다른 병영보다 출진한 장졸이 많았다. 12개 소대와 함께 포대(砲隊)와 군악대인 곡호대(曲號隊)까지 갖추져 있었다.⁵⁵⁾

이두황의 진중일기인 『양호우선봉일기』에는 장위영 전체를 이두황이 지휘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갑오군정실기』에는 이두황과 원세록이 이끈 병대를 <표 9>과 <표 10>과 같이 구분해서 기록하였다. 이두황은 381명, 원세록은 351명의 병대를 이끌었다.

<표 9> 우선봉 이두황이 지휘한 장위영 출진장졸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장교	領官	이두황	
	隊官	박영호 김진풍	
	敎長	최기성 추광엽 오순영 김대유양기영 김명산 박성희 홍선경	
	別軍官	이겸래 김광수 이희두	
병정	兵丁	321	料飭 이하
	長夫	3	
	候兵	11	
	火兵	21	
	騎馬夫	13(騎馬 13필)	
	卜馬軍	8(卜馬 8필)	
출진장졸 계	381		

53) 『고종실록』 1894년 4월 2일.

54) 『승정원일기』 1894년 9월 19일.

55) 『양호우선봉일기』에 본부와 각 소대, 포대와 곡호대에 속한 장졸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표 10〉 영관 원세록이 지휘한 장위영 출진장졸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장교	領官	원세록	
	隊官	윤희영 이규식	
	敎長	김인길 김인규 손세복 이경진	
	別軍官	윤지영	
병정	兵丁	306	糾飭 이하
	候兵	6	
	火兵	16	
	騎馬夫	8(騎馬 8필)	
	卜馬軍	15(卜馬 15필)	
출진장졸 계	351		

경리청 출진장졸은 영관 홍운섭과 서산군수 성하영이 나누어 지휘하였다. 서산군수 성하영과 영관 홍운섭이 인솔한 병대는 청주로 직행한 후 10월 19일 공주에 도착하여 우금치전투에 가세하였다.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서로군과 함께 우금치전투에 참가한 경군은 선봉장이규태가 이끄는 통위영을 비롯해서 안성군수 홍운섭이 이끈 경리청 우1소대, 영관 구상조가 이끈 경리청 좌1소대, 대관 백락완이 이끄는 경리청 좌2소대, 서산군수 성하영이 이끄는 경리청 중 2소대였다.⁵⁶⁾

〈표 11〉와 〈표 12〉은 홍운섭과 백락완 그리고 성하영이 이끌었던 경리청 출진장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728명이나 된다. 우금치를 방어했던 병력은 1개소대가 지대로 홍주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외된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서로군 1개중대와 공주감영의 영병을 더한 수였다. 모두 1,000명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수였다.

56) 신영우, 2011, 「北接農民軍의 公州 牛禁峙·連山·院坪·泰仁戰鬪」, 『한국사연구』 154 참고.

〈표 11〉 영관 홍운섭이 지휘한 경리청 출진장졸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장교	領官 1	홍운섭	
	隊官 2	조병완 백락완	
	教長 4	김홍엽 이장혁 김명환 장대규	
	書記 1	백운상	
병정	兵丁	304	料飭 이하
	候兵	1	
	火兵	16	
	長夫	1	
	騎馬夫	1(騎馬 1필)	
	卜馬軍	27(卜馬 27필)	
출진장졸 계	358		

〈표 12〉 서산군수 성하영이 지휘한 경리청 출진장졸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장교	瑞山郡守1	성하영	
	領官 1	구상조	
	隊官 2	윤영성 이상덕	
	教長 4	이봉춘 정재원 우기원 정인갑	
	書記 1	이인원	
	參謀官 3	이윤철 이상덕 신효식	
병정	兵丁	304	料飭 이하
	候兵	1	
	火兵	16	
	騎馬夫	1(騎馬 1필)	
	卜馬軍	34(卜馬 34필)	
출진장졸 계	370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중로군과 함께 행군했던 경군은 교도중대였다. 영관 이진호가 인솔한 교도중대의 실제 지휘관은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 소좌였다. 〈표 13〉은 교도중대의 출진장졸의 규모를 보여준다. 미나미 소좌의 평은 다음과 같다.⁵⁷⁾

“韓兵 중 교도중대는 日本人에게 어느 정도 교육받은 부대이다. 게다가 제18대대의 장교 1~2명과 하사관 약간 명이 이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장 잘 그 임무를 다하였다. 다만 前哨 근무 또는 정찰 등 작전요령에 관해서 처음에는 아직 교육받지 못했으므로, 이와 같은 임무수행을 감당해 내지 못하였다. 하여튼 이 부대는 조선군대의 기초가 될 것이며 公使로부터 이들을 계속 잘 훈련시키라는 內命도 있고 해서, 정말 이들 교육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11월 24일 첫 전투에서는 아직 좋은 성과를 보지 못했지만, 점차 실전에 익숙해져서 錦山과 沃川 근처의 전투에 이르러서는 前哨 근무 정찰 등 임무를 잘 감당해 낼 수 있었으며 오직 장교뿐만 아니라 병졸들도 매우 진보하였다.”

〈표 13〉 영관 이진호가 지휘한 교도대 출진장졸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장교	領官 1	이진호	
	隊官 5	이민굉 이겸제 서인근 이승규 최영학	
	敎長 5	이태황 조인순 김장옥 유성원 김금석	
	書記 2		
병정	兵丁	209	糾飭 이하
	軍曹	2	
	候兵	12	
	火兵	15	
	文書員	2	
	使喚	2	
출진장졸 계	255		

천안과 목천 그리고 온양과 직산 일원은 동학의 주요 세력권 중 하나였다. 2차봉기가 시작되기 이전인 8월에 천안에 들어온 일본인 6명이

5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二. 各地東學黨 征討에 관한 諸報告<제1권 제7장의 후반부> (2) 東學黨 征討略記.

피살되어 일본공사관에 소속된 순사를 보내서 조사하는 일도 있었다. 2차봉기가 시작된 후에는 동학도들이 활발히 활동하여 10월 20일에 이를 경계하는 방문을 제시하였다.⁵⁸⁾

“천안읍 온 경내에 비류가 출몰하는 것은 다른 읍에 비해 더욱 심하다. 사람들마다 사설(邪說)에 물들고 집집마다 동학당에 들어가서 함부로 날뛰고 말썽을 부리되 못하는 것이 없다. 서울이나 시골에까지 시끄럽게 알려진 까닭에 천안 경내에 들어간 뒤에 한번 도륙을 해서 징계할 계획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천안의 전 감찰 운영렬과 아산의 출신(出身) 조중석이 300명의 민보군을 결성해서 도순무영의 선봉과 협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군의 행군 목표는 1차가 청주와 공주였고, 2차는 전라도지역이었다. 천안의 유생들은 위기를 느끼고 선봉 이규태에게 “특별히 군대를 머물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⁵⁹⁾ 도순무영은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교장(敎長) 원봉석이 지휘하는 36명의 병대를 천안에 주둔시키게 된다.

〈표 14〉 교장 원봉석이 지휘한 장위영 출진장졸(천안 防守)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장교	敎長 1	元奉錫	
병정	兵丁	32	
	候兵	1	
	火兵	1	
	騎馬夫	1(騎馬 1필)	
출진장졸 계	36		

58) 『순무선봉진등록』 第一, 1894년 10월 20일 榜示文 天安.

59) 『순무선봉진등록』 第一, 1894년 10월 22일.

강화도의 심영(沁營)은 경기 연안의 해상을 방어하면서 서울을 방수하는 책임을 진 병영으로서 전라도와 충청도의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자 1차봉기 때와 같이 심영의 장졸을 보내서 진압하려고 하였다.⁶⁰⁾ 그러나 무기와 탄환 공급이 순조롭지 않고 출진장졸을 지휘할 중군이 병이 나서 출발이 늦어졌다.⁶¹⁾ 전라도로 출진한 심영의 장졸은 전주로 들어가서 전주성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일본군 후비보병제19대대가 나주에 본부를 두고 전라도 남부의 동학농민군을 수색하고 있을 때 신임 전라감사 이도재(李道宰)는 해산한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체포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여러 군현에서 동학조직의 거점이 제거되었고 수많은 동학농민군 참여자가 혹독히 처벌되었다. 그러한 탄압책의 무력 기반이 강화도에서 파견된 심영의 장졸들이었다.

김개남이 태인 종송리에서 피신하고 있다는 고변이 들어오자 즉각 심영의 장졸이 출동해서 12월 2일 붙잡아왔다.⁶²⁾ 전라감사가 상을 내걸고 체포를 독려했던 까닭에 정부에서 시상을 논하기도 하였다.⁶³⁾ 전주성에 주둔한 심영의 장졸은 중군 황현주 이하 327명이었다.

〈표 15〉 중군 황현주가 지휘한 심영(沁營) 출진장졸(전주 守城)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장교	中軍 1	황현주	
	領官 1	황시중	
	哨官 3	박승규 조상석 최호성	
	哨長 3	박순영 박제언 김대성	
	軍醫 1	정선경	
	策應官 1	송태혁	
	軍官 1	이석준	

60) 『일성록』 1894년 9월 29일.

61) 『속음청사』 1894년(고종 31) 9월.

62) 『고종실록』 1894년 12월 6일.

63) 위 자료, 1894년 12월 16일.

구분	직함과 성명		비고
	議校 3	윤치근 이운창 김경석	
	書記 4		
병정	兵丁	265	糾飭 이하
	火兵	25	
	雜色軍	19	
출진장졸 계	327		

도순무영은 일본공사관의 요청에 따라 별군관과 참모관 12명을 후비보병 제19대대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전라도와 충청도 그리고 황해도에도 여러 사람을 파견해서 격동기의 사회 동향을 파악하였다. 『갑오군정실기』에 파견 인원의 명단이 실려 있다.

〈표 16〉 후비보병 제19대대 파견 인원

직함	성명	비고
別軍官 11	남만리 유한세 강원로 박치운 이창식 천희천 김형진 추시안 하정룡 김중겸 정운룡	
參謀官 1		
계	12	

〈표 17〉 충청 전라도 파견 인원

직함	성명	비고
別軍官 經理領官	조희문	
別軍官	조 경	
壯衛營 隊官	오성학 임병길	이상 兩湖 出駐
參謀士	이명상 강완선	
別軍官	이선재 유치달	이상 湖西 左右道 分去
別軍官	홍재준	海西

정부에서는 경군 병영을 파견하면서 경기도의 양성현감 남계술을 윤령관으로 전 비인현감 박면동을 윤량감관으로 임명해서 군량을 공급하

도록 하였다. 박면동은 도순무영의 별군관으로 삼아 군량 공급을 맡도록 하였다.

도순무사는 관인을 찍은 공문을 수시로 각 병대에 보내서 파견한 장졸들을 호궐해서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동이 심한 까닭에 각 병대가 제때 군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일본군 미나미 고시로 소좌가 언급하듯 민간에 폐를 끼친 일은 보급 곤란이 초래한 결과도 있었다. 그래서 군무아문에서는 지나가는 어느 군현이든 공금을 전용해서 군수로 사용하게 하였다.⁶⁴⁾

충청도에서는 노성 신창 온양 회덕 충주의 지방관이 윤량관으로 임명되어 군량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표 19>과 같이 도순무영에서 파악한 군수미와 군수전의 액수는 막대하였다. 공금과 세곡을 전용하기도 했고, 고종이 내린 내탕금과 운현궁에서 나온 하사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또 대신을 비롯 각계에서 원조를 받아 사용하였다.

〈표 18〉 윤량관 명단

지역	윤량관
경기도	양성현감 남계술 전 비인현감 박면동
충청도	노성현감 김정규 신창현감 최재학 온양군수 서만보 회덕현감 이규서 충주목사 박세병

〈표 19〉 도순무영 군량과 경비 및 잔액

구분	군수미 및 군수전	비고
捧上	米 496석 11두 4승 太 6석 3두 9승	米 504석 11두 4승 太 6석 3두 9승

64) 『선봉진서목』 1895년 1월 3일.

구분	군수미 및 군수전	비고
	錢 92,573량 3전 5푼 布 2필 綿子 4,448근 - 이상 탁지 移來 錢 4,000량 - 內下 錢 2,000량 - 운현궁 米 8석 錢 59,436량 1전 6푼 - 이상 各人 願助	布 6필 綿子 4,448근 錢 158,009량 5전 1푼
上下	米 498석 11두 4승 太 6석 3두 9승 錢 144148량 2전 3푼 布 2필 綿子 4,430근	
時在	米 6석 太 0 錢 13,861량 1전 8푼 木 18필 布 0 綿子 18근	군무아문 이송

맺음말

1894년에 설치한 양호도순무영은 조선정부의 최고 군사지휘부였지만 경복궁 침범 이후 내정과 군사 간섭을 하던 일본공사의 압력에 의해 갑자기 철폐되었고, 도순무사 신정희와 중군 허진은 좌천된다. 도순무사와 일본공사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았고, 출진장졸을 지휘하던 선봉장이규태가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소좌 등과 갈등을 벌인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그 때문에 양호도순무영의 모든 활동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갑오군정실기』는 양호도순무영의 활동을 전해주는 공문서집이지만 공식으로 작성한 기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전에 국란을 맞아 설치되었던 다른 순무영과 같이 등록(謄錄)이나 사실(事實) 등의 이름⁶⁵⁾을 붙이지 못하고 실기(實記)라고 했다.⁶⁶⁾

그러면 누가 이를 모아서 정리하였는가? 도순무영 폐지 이후 잔무 정리를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추측하건데, 종사관이나 서기 또는 공문서 수발 담당자가 정리해오던 공문서집을 정리하여 『갑오군정실기』로 성책했을 수가 있다.

『갑오군정실기』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각 지역 새로운 사례를 전해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1894년의 국내 상황을 넓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국내자료로는 이 이상의 가치 있는 사료를 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각 지역의 사례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왜곡된 인식을 수정하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 2024. 4. 2.	심사일 : 2024. 4. 23.	게재확정일 : 2024. 4. 29.
-------------------	--------------------	----------------------

65) 좌선봉의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騰錄)』과 상주소모영의 『소모사실(召募事實)』이 실례이다.

66) 실기(實記)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로 양호도순무영과 같이 모든 군영을 망라해서 지휘한 최고 군사지휘부의 공식 활동기록에 붙여질만한 이름이 아니다.

참고문헌

<자료>

『양호순무선봉장이공묘비명병서(兩湖巡撫先鋒將李公墓碑銘并序)』.

『갑오군정일기』.

『경무청관원이력서(警務廳官員履歷書)』.

『고종실록』.

『금영내찰(錦營來札)』.

『대한제국관원이력서』.

『모충사실기(慕忠祠實記)』.

『비변사등록』.

『속음청사』.

『순무선봉진등록』.

『순무영등록(巡撫營謄錄)』.

『승정원일기』.

『양호우선봉일기』.

『영조실록』.

『일성록』.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2권, 3권, 5권, 6권.

『춘경대집』.

<단행본>

국립고궁박물관, 2011, 『다시 찾은 조선왕실 의궤와 도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 (2016년 10월 6일 학술대회).

육사 한국군사연구실편, 1977, 『韓國軍制史: 近代 朝鮮後期篇』.

<논문>

배향섭, 1997, 「전봉준과 대원군의 ‘밀약설’ 고찰」, 『역사비평』 39, 역사비평사, 139~173쪽.

신영우, 2007, 「한말 일제하 충북 진천의 유교지식인 연구: 洪承憲·鄭元夏·鄭寅杓를 중심으로」, 『광무양안과 진천의 사회경제 변동』, 혜안.

_____, 2010, 「將臣 申正熙의 仕宦 이력과 활동」, 『역사와 담론』 57, 호서사학회,

109~151쪽.

_____, 2011, 「兩湖都巡撫營 指揮部와 日本軍 간의 갈등」, 『국방』 81, 151~186쪽.

_____, 2011, 「北接農民軍의 公州 牛禁峙·連山·院坪·泰仁戰鬪」, 『한국사연구』 154, 한국사연구회, 255~298쪽.

이상백, 1962, 「동학당과 대원군」, 『역사학보』 17, 역사학회, 1~26쪽.

이상찬, 2002, 「이등박문이 약탈해 간 고도서 조사」, 『한국사론』 48, 서울대 국사학과, 231~282쪽.

장필기, 2010, 「鎭川 논실의 卍山申氏 將臣閥族家系와 申鴻周」, 『역사와 담론』 57, 호서사학회, 37~71쪽.

최진욱, 2010, 「申櫨(1811~1884)의 생애와 활동」, 『역사와 담론』 57, 호서사학회, 73~107쪽.

〈Abstract〉

The Organization of the Honam and Hoseo Sunmuyeong and Activity in 1894

Shin, Youngou*

In this article, I delve into the activities of the Honam and Hoseo Sunmuyeong (兩湖巡撫營) during the year of 1894. Sunmuyeong, as the Supreme Command, played a crucial role in suppressing the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Army.

As the Commander in Chief of Sunmuyoung, General Shin Chung-hee (申正熙) found himself in a precarious situation. Several critical factors influenced his actions:

Japanese Troops at Gyeongbokgung: The Japanese forces had captured Gyeongbokgung (景福宮), the royal palace where the Korean king resided. Their presence directly interfered with the domestic affairs of the Joseon Dynasty.

Non-Cooperation with Japanese Troops: General Shin Chung-hee had no intention of collaborating with the Japanese troops. His stance led to his dismissal even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ivil war.

Due to his dismissal, the official last report from Sunmuyoung could not be officially released. However, recent discoveries shed light on an alternative source: the Gabogunjungsilgi (甲午軍政實記). This report was prepared by the official recorders of Sunmuyoung and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process of establishing military organizations and the

* Honorary Professor of Department of History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overall military activities during that period.

By examining the Gabogunjangsilgi, researchers can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intricate dynamics and challenges faced by Sunmuyoung and its commander, General Shin Chung-hee, during this critical historical juncture.

Key word : The Honam and Hoseo Sunmuyeong, Sunmusa Shin Chung-hee,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Japanese army, Gabogunjangsilgi